문 닫은 뒤의 도자기

Velvi



비뚤어진 잎의 자리

01

Velvi

비뚤어진 잎의 자리



01 문 닫은 뒤의 도자기

Velvi는 차하(茶荷)를 몸 앞에 받쳐 들고 있습니다. 손님들에게 마른 찻잎을 보여 줄 때 쓰는 넓은 접시입니다. 접시 위에는 긴 찻잎이 놓여 있습니다. 차를 우리기 전에 잎 모양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.

함께 마신 차

TEA.TOYS

의상 01 보기